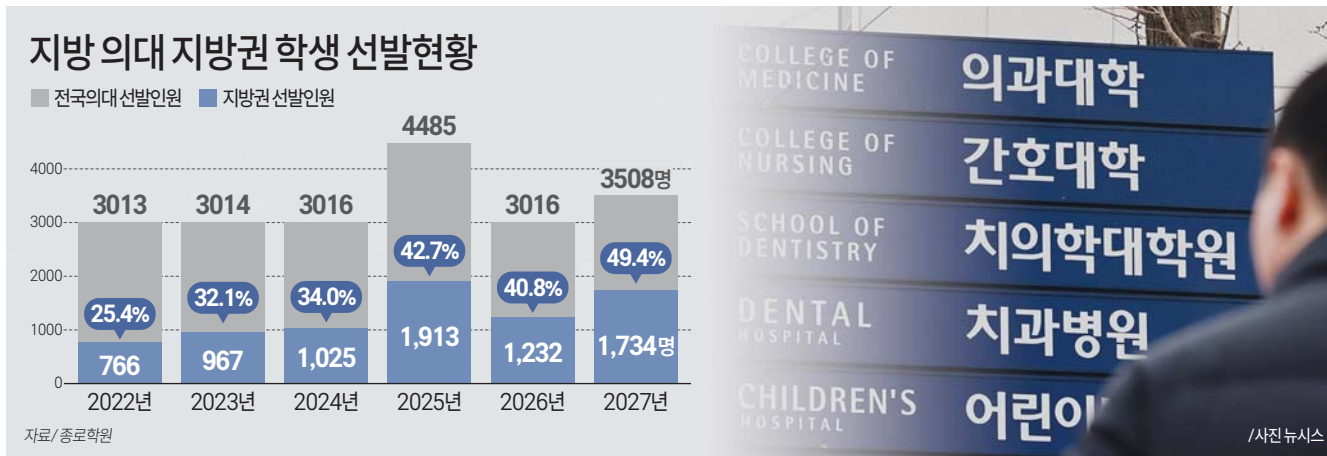




의과대학 지방인재 선발규모 확대 수도권 학생, 입시 더 어려워진다

**지역의사제 반영 등 모집인원 변화
전국 단위 선발비율 첫 50% 이하
“수도권 학생, 보수적 전략 세워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 서울 등 수도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인원이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지방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의사제 선발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면서 지방 학생에게는 의대 진학 기회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2027학년도 모집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인원 3508명 가운데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의사제 등 지방 학생만 지원 가능한 모집인원은 1734명(49.4%)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지방 학생만 선발하는 인원은 2022학년도 766명(25.4%)에서 ▲2023학년도 967명(32.1%) ▲2024학년도 1025명(34.0%) ▲2025학년도 1913명(42.7%) ▲2026학년도 1232명(40.8%)에 이어 2027

학년도 1734명으로 늘었다.

반대로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은 1752명으로 전체의 49.9%에 그쳤다. 전국 단위 선발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 학생이 지원 가능한 모집인원도 크게 줄었다. 2022학년도 2247명(74.6%)이던 전국 단위 선발은 2027학년도 1752명(49.9%)으로 감소해 인원과 비율 모두 크게 축소됐다.

특히 지방 27개 의대는 전체 모집인원 2490명 가운데 1734명(69.6%)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한다.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38.0%에서 2027학년도 69.6%까지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의대의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이 7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76.5% ▲부산·울산·경남 73.7% ▲대구·경북 70.9% ▲충청 69.6% ▲강원 46.4% 순이었다. 특히 제주권은 지난해 52.5%에서 올해 76.5%로 24%p 올랐고, 충청권도 57.5%에서 69.6%로 상승했다. 지방 27개 의대의 지역 학생 선발인원은 지난해 1232명에서 올해 1734명으로 502명(40.7%) 늘었다. 기존 지역인재 선발이 36명 증가한

데다 지역의사제 466명이 새로 추가된 영향이다.

대학별로는 동아대가 전체 모집인원의 84.8%를 지역 학생으로 선발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대 84.0% ▲경상국립대 83.7% ▲원광대 83.6% ▲동국대 WISE캠퍼스 83.3% ▲부산대 80.8% 등도 80%를 웃돌았다. 반면 ▲한림대는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이 32.5% ▲가톨릭관동대 34.5% ▲연세대 미래캠퍼스 36.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로학원은 올해 지역인재 선발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선발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지방 학생에게 유리한 입시 구도가 더욱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사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는 서울권 학생에게는 역대 가장 어려운 입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지방권 학생에게는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의사제 확대로 역대 가장 유리한 지원 환경이 조성됐다”며 “수도권 수험생은 지원 전략을 보다 보수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수돗물 냄새·소형생물 관리 강화

**폭염 장기화에 따른 수질변화 대비
일 최대 2회 맛·냄새물질 검사 실시**

서울 한강 원수 수온이 29도까지 치솟자 서울시가 수돗물 냄새와 소형생물 관리 수위를 높인다. 평소 주 1회 하던 맛·냄새물질 검사를 상황에 따라 하루 최대 2회로 늘리고, 정수센터에서는 오존·활성탄 처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한강 원수 수질 변화에 대비해 원수 수질 검사와 정수처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가 한강 원수 수온을 측정한 결과 지난달 평균 24도였던 수온은 지난 5일 최대 29도까지 상승했다. 수온이 높아지면 조류 증식이 활발해지고, 이 과정에서 흙이나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서울시는 한강 분류와 취수장 등 9개 지점에서 자체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흙·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는 2-MIB와 지오스민 농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다.

평소 주 1회 실시하는 취수 원수 검사는 관심주의 단계가 되면 하루 1회로 늘



서울물연구원 조류 채수 모습.

/서울시

어난다. 경계 단계에서는 하루 2회까지 확대한다.

6개 정수센터의 정수처리도 강화한다. 오존 투입량과 활성탄 처리 강도를 높이고 중염소 투입량도 수질 상황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고수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소형생물에 대한 관리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정수 과정에서 오존 투입량을 늘리고 활성탄 지 역세척 주기를 단축해 소형생물을 제거할 방침이다.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되기 전 마지막 단계인 배수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배수지 31곳을 주 1회 이상 모

니터링해 소형생물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아리수본부와 서울물연구원, 정수센터 등 관계기관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례적인 폭염으로 맛·냄새물질 경보제 ‘주의’ 단계가 발령됐지만 단계별 대응을 통해 수질 이상이나 관련 민원 없이 수돗물을 공급했다”며 “올해도 폭염 상황에 맞춰 단계별 대응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북도, ‘한국형 가상공장 플랫폼’ 만든다

사업비 21억 투입… 제조 AX 촉진

경북도(도지사 이철우·사진)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공장 건설 전 생산공정과 설비를 가상환경에서 설계·검증하는 ‘한국형 AI 기반 가상공장 플랫폼(KRAFT)’ 개발에 나선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인공지능(AI) 기반 공장 통합운영·사전 검증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7년 5월까지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장 구축 이전 단계에서 생산설비와 물류, 운영 시스템을 디지털 환경에서 통합 설계·검증하는 플랫폼 개발이 핵심으로, 경북도는 AI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공장 통합 설계기술과 디지털트윈 기반 사전검증 기술,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을 개발하고, 포항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적용해 기술 성능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장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비 간 간섭과 공정 운영 문제를 사전에 예측·분석할 수 있는 국산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장 구축 기간 단축과 초기 투자비용, 재작업 감소는 물론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검증된 기술을 지역 주력 제조업으로 확산해 제조 인공지능전환(AI X)을 촉진하고, 원격공장(Factory)의 경쟁력 강화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AI와 디지털트윈은 원격공장을 넘어 다크팩토리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이라며 “포항 이차전지 제조공장 실증을 통해 생산공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다크팩토리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연천군, ‘구석기 엑스포’ 국제행사 추진

국비지원 대상 사업 확정

연천군은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가 지난 5일 기획예산처 제147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되며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연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는 지난 26년 3월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행사 개최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인정받아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는 구석기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학술, 전시, 체험, 국제 교류를 결합한 복합 문화행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천 전곡리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 선사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은 전곡리 유적을 기반으로 한

‘연천구석기축제’를 33회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지역 축제를 국제적 문화 행사로 확장해 왔다. 이번 국제행사 승인을 계기로 콘텐츠 고도화, 국내외 홍보 강화, 참가국 및 관련 기관 유치, 학술·전시 프로그램 내실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심사 과정에서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에 대해 공익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주관기관의 운영 역량, 국고지원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국제행사 최종 승인은 연천군민과 경기도가 함께 준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문화유산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는 오는 2029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1일간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연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경남정보대, 부산기업 수출 성과 뒷받침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 파견

경남정보대학교가 ‘2026 베트남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부산 AI·ICT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수출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부산형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파견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남부발전, 부산벤처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함께 진행됐다.

파견 기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진출 전략 세미나,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회,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 및 현지 진출 기업 방문, ‘2026 한-베 ICT 비즈니스 및업 포럼’ 등이 운영됐다. NIC는 2019년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에 설립된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다.

부산 지역 AI·ICT 분야 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KOTRA 하노이무역관 등



경남정보대학교 ‘2026 베트남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정보대학교

의 사전 매칭을 거쳐 현지 바이어 61곳과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2364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104건과 현지 기업과의 업무 협약(MOU) 14건이 체결됐다.

경남정보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NIC 등 현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